비전개발 3주차 보고서

21600685 조예성

교수님께서 계속해서 2주에 거쳐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해주시는데 이것은 현 시점이 우리가 다시 한 번 앞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중요한 때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같은 질병이 만연하고, 아프리카에서부터 넘어온 메뚜기 떼, 남극의 온도 20도 돌파, 중국 등 주요국들의 기독교 박해 등.. 말세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요즘, 과연 한동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개교한 지 어연 25년이 넘은 상황에서, 과연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앞 길을 바라보고 달렸는지 아니면 열심히는 달렸으나 땅만 보고 달려서 어디로 달렸는 지 모르는 채로 현 위치에 와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 대학이 가져야할 가장 큰 정체성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초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모든 세상의 일은 그 운영 체계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창조와 타락을 넘어 구속의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구속의 단계를 거쳐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 학교 나아가 크리스천들이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 대학과 다를 것이 없어지게 된다. 더 좋은 아웃풋을 내고 더 좋은 학문의 깊이를 닦는 것은 대학이 가야할 올바른 방향은 맞으나 그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자신의 성취감과 만족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대학을 표방하는 한동대학교가 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닐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에서 기독교 대학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가치관 중 하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지하는 것이다. 학문을 닦고 지식을 축적하다보면 많은 발명과 발견 속에 가치들을 찾게 되지만, 그 모든 것의 근간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학문에 임하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결과를 낳고 결국 구원의 역사에서 한동은 주님께 배반하는 학문의 고장으로 제 2의 바벨탑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온전히 주의 진리를 추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기독교 대학이 나아가야 할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든다.